

조선시대三世佛像의 연구

심 주 완*

- I. 머리말
- II.三世佛의 개념과 造像 전통
- III. 조선시대三世佛像의 圖像 형식
- IV. 조선시대三世佛像의 특징
- V. 맺음말

I. 머리말

三世佛은 敎學上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적 개념을 상징하는 부처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시간적 개념과 다른 석가불·약사불·아미타불로 구성된, 복합적 개념의 독특한 삼세불상이 대유행하게 된다(도1). 또한 본존상에는 비로자나불이 봉안되기도 하고, 좌우존상에는 아미타불·미륵불·다보불 등이 다양하게 등장하기도 한다. 이 삼세불은 주요 사찰의 중심 佛殿에 봉안되었고, 또한 우리나라 전역에 퍼져 있어 조선시대 周刻史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조각사에 있어 삼세불상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 고려대 대학원 문화재학협동과정 박사과정



도1 <송광사 대웅전 석가삼세불좌상, 1641년, 소조, 안주 송광사

그간의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佛敎繪畵史 부분에서 연구가 되기 시작하여, 1990년 때에는 삼세불화의 개념과 도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 조선시대 조각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중국의 삼세불상에 대한 연구성과도 나타나고 있다.¹ 그러나 삼세불에 대한 개념과 명칭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고, 그에 따른 형식 분류와 도상 해석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어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 조각사적 비중에 비하여 본격적인 연구는 시도되지 않고 있다.

¹ 문명대, 「조선조 석가불화의 연구」, 『조선조 불화의 연구—三佛畵圖』(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김경섭, 「龍珠寺 大雄寶殿 三佛畵圖의 研究」(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문명대, 「三身佛의 圖像特徵과 朝鮮時代 三身佛畵圖의 研究」, 『韓國의 佛畵』 12 (정보문화재단연구원, 1998); 정명희, 「朝鮮後期 掛佛幀畵의 研究」(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溫玉成, 「泉州三世佛造像再探」, 『敦煌研究』 66 (敦煌研究編輯部, 2000); 심주안, 「17世紀 前半期 大形塑造佛像 研究」(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이분희, 「奉恩寺敬三世佛像의 研究」, 『불교문화』 6 (한국불교문화학회, 2004); 정은우, 「敬天寺址 10層石塔과 三世佛會考」, 『미술사연구』 19 (미술사연구회, 2005. 12); 황규성, 「朝鮮時代 三世佛 圖像에 關한 研究」, 『미술사학』 20 (미술사교육학회, 2006); 송은석, 「17世紀 朝鮮王朝의 彫刻僧과 佛像」(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이용윤, 「삼세불의 형식과 개념의 변화」, 『미술사학』 20 (동양미술사학회, 2008. 6).

그래서 그간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조선시대 삼세불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키고자 한다. 먼저 삼세불상의 문헌기록을 살펴보고 삼세불의 개념과 명칭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그리고 조선시대 이전의 작품을 통해 삼세불상의 造像 전통을 살펴보고, 삼세불상의 起源에 근접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조선시대 삼세불상의 도상 형식을 살펴보고 각 존상의 존명은 무엇인지 규명하여, 조선시대 삼세불의 특징을 추론해보고자 한다. 단, 본고는 조선시대 삼세불상의 연구를 시작하는 시론적 단계이므로 조선시대 삼세불상이 유행한 조성 배경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으며, 중국과의 교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음을 밝혀 둔다.

II. 三世佛의 개념과 造像 전통

1. 三世佛의 개념

三世佛은 敎學上 시간적 개념인 과거세·현재·미래세의 三佛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경전에 ‘三世’는 시간의 개념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 경전인 아함경류, 열반경류 등에서부터 대승경전인 반야경류, 법화경류, 화엄경류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경전에 ‘三世’를 과거·현재·미래인 시간의 개념으로 나타내고 있다.²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본존 釋迦佛이나 毘盧遮那佛을 중심으로, 공간적 개념의 東方藥師佛과 西方阿彌陀佛로 구성된 삼불상을 三世佛로 명명하고 있다.³ 이러한 삼불 형식은 명확한 근거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선시대 기록을 살펴보면 삼세불로 명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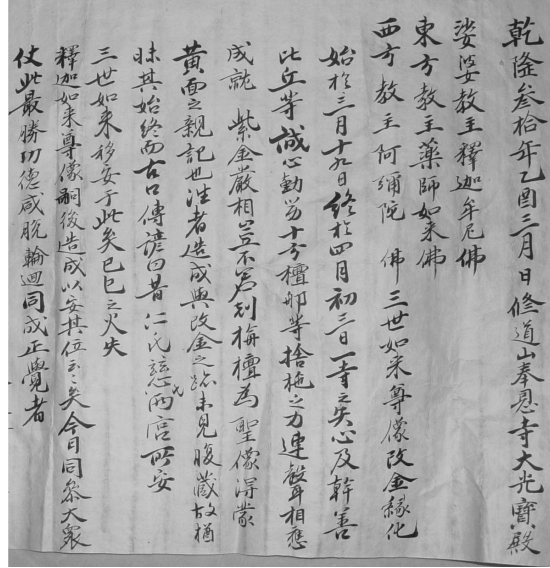
먼저 <경천사지석탑>(1348)과 <원각사지석탑>(1467)(도14)의 남면 편액에 ‘三世佛會’라고 새겨져 있어 비로자나불 중심의 삼불 형식이 삼세불임을 알 수 있다(도2). <봉은사 대웅전

² “無事不察 當來·過去·現在三世皆悉明了.” 『增一阿含經』, 『大正新脩大藏經』 권2, pp. 787c4-787c5; “論曰 三世法得各有三種 謂過去法有過去得有未來得有現在得 如是未來及現在法各有三得.” 『阿毘達磨俱舍論』, 앞의 책 권29, pp. 22c27-22c29; “供養三世 一切諸佛 過去諸佛 所願悉滿 未來諸佛.” 『大方廣佛華嚴經』, 앞의 책 권10, pp. 131a20-131a21; “善現 過去世過去世空 未來世未來世空 現在世現在世空 三世平等性三世平等性空.” 『大般若經』, 앞의 책 권5, pp. 332c8-332c10; “如是佛性。爲是過去爲是現在爲是未來爲遍三世.” 『大般涅槃經』, 앞의 책 권12, pp. 570c25-570c26.

³ 毘盧遮那佛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三世佛形式은 毘盧遮那佛을 중심으로 報身 盧舍那佛과 化身 釋迦佛로 구성된 三身佛 개념과 다르다.



도2 <경천사지석탑 삼세불회 편액>, 1348년.
석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3 <봉은사 석가삼세불상 개금기>, 1765, 자본목서, 서울
봉은사 소장

三佛像의 복장에서 발견된 「改金記」(1765)에는 각 존상의 존명과 삼불을 통칭하는 명칭이 밝혀져 있다(도3). 이 개금기록에 의하면 사마교주 석가불·동방교주 약사불·서방 교주 아미타불로 구성된 공간적 개념의 삼불상을 ‘三世如來尊像’으로 명명하고 있다.⁴ 또한 <경주 왕릉사원 삼불 중 석가불상>(1579)에서 발견된 「佛像重修記」(1716)⁵와 포항 <오어서 삼불상> 불상 조상기에서도 ‘三世如來’라 불리고 있다(도9). 그리고 「鼎峙山傳燈寺佛像重修記蹟」(1767)의 기록에 의하면 <전등사 대웅보전 삼불상>이 ‘三世如來’로 명명되어 있으며, <각연사 삼불상> 「改金記」(1831)에도 ‘三世如來’라고 명명되어 있다. 불상 관련 기록은 아니지만 <용주사 대웅보전 후불탱화>에 대한 문헌기록에도 삼세불로 명명되어 있고, 용주사에 봉안된 서화와 작가에 대한 목록집인 「本寺精舍設書畫造作等諸人芳躅」(1825)에서는 ‘三世如來體幀’이라 하고 있다.

⁴ “乾隆參拾年乙酉三月日修道山奉恩寺大光寶殿 娑婆教主釋迦牟尼佛 東方教主藥師如來佛 西方教主阿彌陀佛 三世如來尊像改金佛事始” 『奉恩寺—수도산 봉은사 지표조사보고서』(대한불교조계종 수도산 봉은사·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4), pp. 255-256 참조

⁵ “……寶刹有佛像三尊乃三世如來也 娑婆琉璃兩世教主 萬曆七年己卯一時造成也……” 문명대, 『왕릉사원의 조선전반기 불상조각』(한국미술사연구소·왕릉사원, 2007. 4), pp. 54-55 참조.

이와 같이 조선시대 삼불 형식은 삼세불로 명명되고 있다. 특히 <봉은사 대웅전 三世佛像>에서는 사바교주 석가불·동방교주 약사불·서방교주 아미타불로 기록하고 있어, 시간적 개념보다는 공간적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즉 조선시대 삼세불상은 교학상의 시간적 개념보다는 공간적 개념 혹은 복합적 개념으로 확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三世’라는 용어에서도 시간적 개념뿐만 아니라 공간적 개념을 찾아볼 수 있다. 몇몇 경전에서는 ‘三世’라는 용어가 시간의 의미에 국한되지 않고, 공간의 개념인 ‘三界’, ‘國土’, ‘世界’ 등과 동일시되거나 공간적 개념과 융합되기도 한다.⁶ 즉 ‘世’는 世上, 世相, 世界, 世間 등과 같은 공간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적 개념의 삼세불은 경전에 등장하는 시간적 개념의 삼세불과 공존하면서 확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존명이 밝혀진 가장 오래된 삼불 형식은 중국 隋 546년에 조성된 河南城 安陽 寶山 <大留聖窟>과 隋 589년에 조성된 河南省 安陽 寶山 <靈泉寺 大住聖窟>의 삼불상이다. 이 삼불상들은 盧舍那佛을 중심으로 좌존 미륵불·우존 아미타불로 구성되어 있다(도 4). 미래불을 상징하는 미륵불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시간의 개념이 포함되지만, 서방 극락정토를 상징하는 아미타불도 공존하고 있어 공간의 개념도 나타난다. 또한 아미타불은 공간의 개념이 강하지만, 『佛說無量壽經』에서 ‘今已成佛現在西方’, ‘成佛已來凡歷十劫’이라 하고 있어 아미타불이 과거불이라는 시간적 개념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⁹

시간과 공간이 공존하는 개념은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金剛山 三佛巖 마에삼불입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 삼불상은 중앙의 釋迦文佛을 중심으로 좌존 彌勒尊佛과 우존 阿彌陀佛로 구성되어 시공간적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1459년 <鶴林寺 三世佛像> 중수와 관련된 기록에서 시공간이 공존하는 개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¹⁰ 아미타불은 극

⁶ “有爲無爲法眞如卽三世眞如。三世眞如卽三界眞如。三界眞如卽阿耨流一來不還阿羅漢果眞如。” 『大般若經』, 『大正新脩大藏經』 권1, pp. 604b2-604b4; “摩尼爲掛發妙華。十方所有無能匹。三世國土莊嚴事。莫不於中現其影。” 『大方廣佛華嚴經』 80권, 앞의 책 권10, pp. 24a21-24a22; “深心。淨佛刹門一切諸佛。演說無量一切世界。三世諸佛。” 『大方廣佛華嚴經』 80권, 앞의 책 권10, pp. 244a6-244a7.

⁷ 中國美術全集編纂委員會 編, 『中國美術全集』 周禮編³(文物出版社, 1989), p. 38.

⁸ “大住聖窟 大隋開皇九年乙酉歲敬造。窟。用功一千六百二十四。像世尊用功九百。盧舍那世尊一龕。阿彌陀世尊一龕。彌勒世尊一龕。三十五佛世尊四十五龕。七佛世尊七龕。傳法聖大法師二十四人(後略)” 배진달, 『중국의 불상』 (일지사, 2005. 8), p. 243 참조.

⁹ “佛告阿難 法藏菩薩 今已成佛現在西方 去此十萬億刹 其佛世界名曰安樂 阿難又問 其佛成道已來爲經幾時 佛言 成佛已來凡歷十劫 其佛國土自然七寶” 『佛說無量壽經』 上卷, 『大正新脩大藏經』 권12, pp. 270a5-270a8; 정은우, 앞의 논문, p. 46에서 『無量壽經』, 『阿彌陀經』, 『華嚴經』 40권본 등에 의거하여 아미타불에 시공간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미륵보살과의 연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도4 <雲泉寺大住聖窟盧舍那佛像>
 隋 589년, 석조, 河南省安陽寶山
 (『中國美術全集』 인용)

락세계에 常住한다는 공간적 개념과 과거불이라는 시간적 개념이 공존하고, 미륵불도 융화 세계라는 공간적 개념과 미래불이라는 시간적 개념이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시간의 개념이든, 공간의 개념이든, 시공간이 공존하든 간에 ‘三世佛’로 명명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경전에서 ‘三世佛’은 ‘三世諸佛’, ‘三世一切諸佛’, ‘十方三世一切諸佛’ 등으로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처를 대표하는 부처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조선시대에 간행된 의식집에서도 일체제불의 개념이 잘 드러나고 있다.¹¹ 조선시대에 유행한 의식

¹⁰ “殿內御間設寶卓三蓮座內中座靈山教主釋迦如來爲首左昭座極樂導師阿彌陀佛右穆座龍華會主彌勒尊佛彌陀乃過去佛彌勒將當來主釋迦今現在主故坐中也大明天順三年己卯重修也。” 『皇明朝鮮黃海道長湍府北松月山鶴林寺事蹟誌』, 『朝鮮寺刹史料』下(朝鮮總督府, 1911), p. 288.

¹¹ “敬禮十方三世盡虛空界一切諸佛” 朴世敏 편찬, 『眞言勸供』(1496년 간행본), 『韓國佛教義禮資料叢書』 제1집(三聖庵, 1993), p. 439; “一心奉請聖聖刹刹利利塵利十方三世佛陀部衆大毘盧遮那佛盧舍那佛釋迦文佛阿彌陀佛三佛圓融十身”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1573년 공림사 개관 목판본), 앞의 책 제2집, p. 589; “若人欲了知三世一切佛應觀法界性一切唯心造” 『雲水壇經詞』(1627년 민통사), 앞의 책 제2집, p. 18; “奉請十方三世佛” 『靈山大會作法節次』(1634년 용복사 간행), 앞의 책 제2집, p. 134; “拜禮文南無一心禮大毗盧遮那佛 南無一心禮本師釋迦牟尼佛 南無一心禮當來彌勒尊佛 南無一心禮十方三世一切諸佛 南無一心禮十方諸大菩薩摩訶薩” 『仔翼刪補文』(간행미상), 앞의 책 제2집, p. 261; “地藏菩薩摩訶薩 南無本師釋迦牟尼佛 南無阿彌陀佛 南無彌勒尊佛 南無過去七彌佛 南無十方十佛 南無三十五佛 南無五十三佛 南無百七十佛 南無無莊嚴劫劫千佛 南無賢劫千佛 南無星

집은 모든 불상을 일체제불로 파악하고 있으며, 일체제불에 시방과 삼세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즉 三世佛은 모든 공간을 나타내는 十方과 모든 시간을 나타내는 三世가 결합된, 十方三世의 모든 부처인 十方三世一切諸佛을 축약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2. 三世佛의 명칭에 대한 諸說과 문제점

조선시대 삼세불상은 다양한 불상이 서로 결합되고, 시간적 개념과 공간적 개념이 공존하고, 일체제불을 상징하는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삼세불의 개념과 명칭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견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가장 타당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크게 석가불을 중심으로 구성된 삼불 형식과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구성된 삼불 형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석가불을 중심으로 약사불·아미타불로 구성된 삼불 형식의 명칭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¹² 석가를 중심으로 하는 삼불 형식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은 三世佛, 三佛¹³, 三界佛¹⁴, 三方佛¹⁵ 등으로 명명하고 있다. 대부분 삼세불과 삼불로 명명하고, 삼계불, 삼방불로 명명하는 경우는 소수다. 이렇게 호명하는 것은 각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三世佛로 명명되는 경우, 교학상 三世는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적 개념이기 때문에 동방 유리세계 약사불과 서방 극락세계 아미타불 등의 공간적 개념이 등장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초기 경전인 『阿含經』을 비롯하여 대승경전인 『法華經』 등에 이르기까지 삼세는 과거세·현재·미래세라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교학상 맞지 않는 것이다.

다음 三佛로 명명되는 경우는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三佛과 구별되지 않는다. 삼불의 개념은 佛形의 三尊을 구성하는 모든 형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삼신불·삼세불과

宿劫千佛 南無三世諸佛 南無地藏經中一切諸佛”『慈悲地藏經法』(1869년 中國 杭州 昭慶慧空經房 간행), 앞의 책 제4집, p. 514; “念誦 清淨法身毘盧遮那佛 圓滿報身盧舍那佛 千百億化身釋迦牟尼佛 九品導師阿彌陀佛 當來下生彌勒尊佛 十方三世一切諸佛”『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1882년 해인사도솔암 간행), 앞의 책 제4집, p. 524.

¹² 좌보처 약사불 대신에 多寶佛과 彌勒佛이 오는 경우가 있다. 그 외에도 좌우보처불이 독특하게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여하튼 석가불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삼불 형식을 말한다.

¹³ 문명대, 앞의 논문; 김경섭, 앞의 논문.

¹⁴ 정병삼, 『그림으로 보는 불교 이야기』(골빛, 2000), pp. 115-137.

¹⁵ 송은석, 앞의 논문과 송은석, 「17世紀 彫刻僧 玄眞과 그 流派의 造像」, 『미술자료』 70·71 (국립중앙박물관, 2004. 12)에서 三佛을 ‘三方佛’로 명명하고 있다.

구분이 어렵다. 그래서 다양한 삼불 형식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명칭이 필요하다.

三界佛로 명명되는 경우는三世佛이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와 구분하여 공간적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교학상三界는色界·欲界·無色界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렵다.

三方佛의 경우는 삼세불과 마찬가지로 시간적 개념의 삼세불과 구분하고 공간적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교학상 공간을 뜻하는 경우는‘方’이라고 하고 시간을 뜻하는 경우는‘世’라고 한다. 그런데 경전에‘方’은四方, 六方, 八方, 十方 등으로 사용될 뿐‘三方’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표현으로 볼 수 없다. 또한一佛二菩薩로 구성된 수기삼존불의 경우도 삼방불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삼불 형식과 구분이 모호하다.

둘째, 삼세불상 형식 중에는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약사불·아미타불로 구성된 경우가 있는데, 이 형식의 경우도 다양한 의견이 피력되고 있다. ‘毘盧遮那三身佛’, ‘三身佛’, ‘三身三世佛’, ‘三佛’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¹⁶

毘盧遮那三身佛과 三身佛로 명명되는 경우는 비로자나불을 삼신불의 중심으로 보고, 좌우존인 약사불·아미타불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좌우존을 삼신불의 노사나불·석가불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신불은 법신 비로자나불·보신 노사나불·화신 석가불로 구성되므로 원칙적인 삼신불로 볼 수 없다.

三身三世佛의 경우는 비로자나불·노사나불·석가불로 구성된 삼신불과 석가불·약사불·아미타불로 구성된 삼세불이 결합된 명칭이다. 이 경우는 삼신불과 삼세불이 융합되어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비로자나불·노사나불·석가불·약사불·아미타불로 구성된 五佛과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三佛로 명명한 경우는 석가불을 중심으로 하는 삼세불과 구분하기 힘든 명칭이다.

그래서 본고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명칭은‘三世佛’이다.¹⁷三世佛은 일반적으로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적 개념이기 때문에 삼세불 구성에 있어 공간적 개념이 강한 약사불과 아미타불이 등장하고, 본존상에 三身佛 개념의 비로자나불이 등장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렇지만 앞서 밝혔듯이, 조선시대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삼불 형식이‘三世佛’, ‘三世如來’

¹⁶ 문명대, 「三身佛의 圖像特徵과 朝鮮時代 三身佛會圖의 研究」, 『韓國의 佛書』 12 (성보문화재단연구원, 1998); 정명희, 앞의 논문; 심주완, 앞의 논문; 황규성, 「朝鮮時代 三身佛會圖에 관한 研究」(동국대학교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¹⁷ 최근 조선시대 삼불 형식을 삼세불로 명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용운, 앞의 논문, pp. 91-118 참조

로 명명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조선시대 문헌에 따라 시간적 개념뿐만 아니라 공간적 개념의 삼불 형식도 삼세불로 명명하고자 한다. 또한 본존상이 석가불이든 비로자나불이든, 시공간적 개념으로 삼불이 구성되면 모두 삼세불로 명명하고자 한다. 특히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약사불·아미타불로 구성된 삼불 형식을 삼세불로 명명하는 것은 비로자나불·노사나불·석가불로 구성된 삼신불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석가불 중심의 삼불과 비로자나불 중심의 삼불이 모두 삼세불로 명명될 경우, 서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이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석가불 중심의 삼세불은 석가삼세불로, 비로자나불 중심의 삼세불은 비로자나삼세불로 명명하고자 한다.

3. 三世佛의 造像 전통

삼세불은 인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형식이지만, 중국에서는 불상 유입 초기부터 등장하여 유행한 것으로 판단된다.¹⁸ 北魏 5세기 후반경에 山西省 大同 〈雲岡石窟 18굴, 20굴〉(도 6), 甘肅省 天水 〈麥積山石窟 74굴, 78굴〉, 甘肅省 西夏地區 〈金塔寺 東窟 中心石柱 上部 4면〉등과 같이 삼불 형식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北魏 6세기 초 河南省 洛陽 〈龍門石窟 賓陽中洞 三佛像〉 등과 北齊 6세기 후반 河北省 邯鄲 〈南響堂山石窟 7굴 三佛像〉¹⁹ 등에서 삼세불상의 연원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²⁰ 그러나 이 삼불 형식은 삼불을 통칭하는 명칭과 각 존상의 명칭이 밝혀지지 않아 삼세불상의 개념을 파악하기 어렵다.

삼불상의 존명이 밝혀진 작품은 隋 開皇 9년 河南城 安陽 寶山 〈靈泉寺 大住聖窟〉(589)의 삼불상이다(도 4).²¹ 중앙에 盧舍那佛, 좌측면 彌勒佛, 우측면 阿彌陀佛로 구성되어 있다.

¹⁸ 삼세불은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유행하고 인도, 일본에서는 유행하지 않았다. 중국에서 가장 이른 삼불 형식의 작품으로는 〈炳靈寺石窟 169굴의 북벽 9호 삼불입상〉·〈북벽 14호 삼불좌상〉·〈서벽 16호 삼불입상〉(西晉 시기로 추정) 등이 있다.

¹⁹ 〈響堂山石窟 7굴 삼불상〉의 좌존불상은 의좌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륵불일 가능성이 있다.

²⁰ 그밖에 남북조시대 삼불상은 다음과 같다. 北魏 시기로 추정되는 작품으로는 〈雲岡石窟 5굴〉, 〈麥積山石窟 128〉·〈142굴〉, 〈鞏縣石窟 5굴〉, 〈龍門石窟 魏字洞〉·〈地華洞〉 등이 있고, 東魏 시기로 추정되는 작품은 〈天龍山石窟 3굴〉이 있으며, 西魏 시기로 추정되는 작품은 〈麥積山石窟 계123굴〉, 〈天龍山石窟 3굴〉, 〈四川 廣元皇澤寺 8굴〉 등이 있다. 北齊 시기로 추정되는 작품은 〈響堂山石窟 2굴〉, 〈南響堂山石窟 5굴〉, 〈天龍山石窟 4굴〉 등이 있으며, 北周 시기로 추정되는 작품은 〈炳靈寺石窟 172굴〉 등이 있다.

²¹ 주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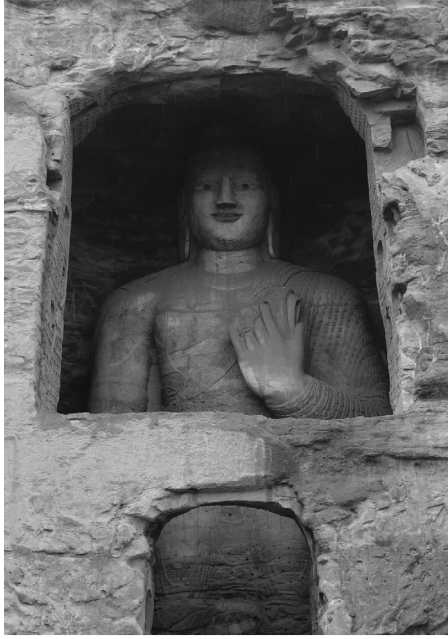


도5 <금강산 삼불암 석가삼세불입상, 고려, 석조, 금강산 내금강>

이보다 앞선 東魏 武定 4년 河南城 安陽 寶山 <大留聖窟>(546)에서도 노사나불·아미타불·미륵불로 판단되는 삼불 형식이 등장하고 있다.²² 중심 불상이 노사나불이라는 점은 노사나불로 알려져 있는 北魏 5세기 후반 <雲岡石窟 18굴 본존상>과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도6). 그래서 <雲岡石窟 18굴>은 노사나불을 중심으로 아미타불·미륵불로 구성된 삼불 형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남조불상인 齊 <永明2년 佛碑像>(484)에서도 아미타불과 미륵불이 함께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아미타불과 미륵불이 삼불상의 좌우존상으로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²³ 이와 같이 중국 초기 삼불상은 과거불·현재불·미래불로 구성된 시간 개념의 三世佛로만 볼 수 없다. 그리고 <永明2년 佛碑像>(484)의 기록에 아미타불·미륵불을 ‘二世尊像’이라고 명명하고 있어 당시 ‘二世’, ‘三世’의 개념에 시공간적

²² 주 참조. 이 삼불상은 모두 동일한 한수인을 결하고 있기 때문에 각 존명에 따른 도상적 특징을 밝히기는 어렵다.

²³ “齊永明元年歲次癸亥七月十五日, 西京曹比丘石玄高, 爲帝主, 臣王, 累世師長, 父母兄弟六親眷屬及一切眾生, 敬造無量壽, 當來彌勒成佛二世尊像” 배진달, 앞의 책, p. 205 재인용. 이 불비상은 앞면과 뒷면에 불상을 세긴 二佛 형식이다.



도6 《雲岡石窟 18窟》, 北魏, 5세기 후반, 석조, 河南省 洛陽

개념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으며, 또한 삼불 형식이 삼세불로 불렸을 가능성도 있다.

唐代는 삼불상이 유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山西省 《佛光寺 東大殿 塑삼불상》(857)과 四川省 《大足石窟 北山 52호 삼세불감》(899) 등과 같이 9세기 후반경부터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²⁴ 특히 《大足石窟 北山 52호 삼세불감》은 본존상이 모두鉢盂와 같은 지물을 들고 있으며, 좌존상은 擬座자세를 취한 미륵불로 우존상은 上生印을 결한 아미타불로 추정해볼 수 있다. 즉 좌우존상이 미륵불·아미타불의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北宋代 陝西省 延安 《鍾山石窟 塑삼불상》(1067)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좌존상과 우존상이 바뀌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²⁵

본격적으로 삼세불상이 유행한 시기는 遼·金代로 판단된다. 특히 이 시기에는 삼불 형식이 三世佛로 명명되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이 요대 《下華嚴寺 薄伽教藏殿 塑造三世諸佛象》(1034)이다. 下華嚴寺의 삼세불상은 과거 연등불·현재 석가불·미래 미륵불로 추정하고 있지만 명확한 것은 아니다.²⁶ 금대 河北省 邯鄲 鼓山 《常樂寺 三世佛坐像》(도7)을 중수한 기록인 《重修三世佛殿之碑》(1195)의 비문에 ‘……三世佛象中尊釋迦當見賢劫彌勒居左當未來星宿劫迦葉……’라고 하고 있어 당시 삼세불은 가섭·석가·미륵이라는 시간적 개념의 삼세불일 가능성이 있다.²⁷ 실질적으로 이 비문은 ‘三世佛’이라는 명칭과 각 존상의 존명을 밝히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조성된 《下華嚴寺

²⁴ 이들 작품보다 이른 8세기로 추정되는 《敦煌石窟 158窟》·《49窟》, 《天龍山 13窟》 등이 있지만 대부분 남북조 시대 석굴의 영향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작품은 모두 석굴 3면에 각각 배치되어 있지만 《佛光寺 東大殿 塑삼불상》과 《大足石窟 北山 52호 삼세불감》은 모두 1면에 병렬로 배치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²⁵ 《敦煌石窟 55窟》, 《麥積山石窟 90窟》 등도 宋 시기로 추정되는 삼불 형식의 작품이다.

²⁶ 中國美術全集編纂委員會編, 앞의 책, p. 369 참조.

²⁷ 2005년 8월 8일 고려대학교대 학원 문화개혁협동과정 중국 답사 시에 조사하였다.



도7 〈常樂寺 석가삼세불좌상〉, 金, 1195년 이전, 석조, 河北省邯鄲 鼓山

薄伽教藏殿 塑造三世諸佛像)의 삼세불은 과거의 功德으로 부처가 되는 授記功德佛 개념의 삼세불이 아니라 가섭불이 過去六佛을 상징하고 있는 過去七佛 개념의 삼세불로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南宋代로 추정되고 있는 大足 〈寶頂山大佛灣 29호 圓覺洞 삼불좌상〉은 보관을 쓰고 있는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上生印의 좌존상과 그릇형의 지물을 들고 있는 우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좌우존상의 명칭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새로운 도상의 출현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²⁸ 본존 비로자나불·좌존 아미타불·우존 약사불로 추정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²⁹

이후 삼세불은 元代에 더욱 유행하게 된다. 福建省 泉州 清源山 〈碧霄巖 마애삼세불좌

²⁸ 정은우, 앞의 논문, p. 47 인용.

²⁹ 본존상이 毘盧遮那佛인 三世佛像은 南宋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조성되었다. 元代에는 陝西省 富縣 폐사지 〈석삼세불좌상〉(1344)이 대표적이며, 明代에는 山西省 平遙 〈鎮國寺 三佛樓 소삼세불좌상〉(明, 1368-1664)과 陝西省 西安 지역 〈盤田水陸庵 塑造三世佛坐像〉(1563) 등이 대표적이다. 정은우, 앞의 논문, p. 50; 『山西佛教彩塑』(中國佛教文化研究所, 1991. 6), 도11.

상)(1292)과 浙江省 杭州 寶蓮山 <寶成寺 三大龕 삼세불좌상>(1322년 이전) 등과 같이 원대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明·清代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들 삼세불상은 降魔觸地印의 석가불·藥器印의 약사불·上品印의 아미타불로 구성된 삼세불로 추정되고 있다.³⁰ 이들 구성은 조선시대에 유행한 석가불·약사불·아미타불의 삼세불 형식과 존명이 일치하고 있지만 도상적 특징이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대가 올라가는 작품은 통일신라시대 경주 남산 <윤율곡 마에삼불좌상>(835년)이다.³¹ 이 작품은 좌우존상의 원손에 圓形 지물을 들고 있는데 당시 비교할 만한 자료가 없어 존명을 밝히기는 힘들다. 존명이 밝혀진 작품으로는 고려 후기로 추정되는 <金剛山 三佛巖 마에삼불입상>이 있다. 이 삼세불상은 각 불상의 상호 좌측에 음각으로 방형의 제약을 만들고 존명을 새겼다. 본존은 '釋迦文佛', 좌존은 '彌勒尊佛', 우존은 '阿彌陀佛'로 중국 남북조 시대부터 꾸준히 조성된 삼세불의 전통을 잇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²

그리고 智拳印 비로자나불 중심의 삼세불 형식인 <경천사지석탑 남면 삼세불회 삼세불좌상>(1348)을 비롯하여 <천은사 금동불감 삼세불좌상>, <송광사 성보박물관 금동불감 삼세불좌상>등의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작품들이 남아 있다.

조선 전기에는 <수종사 오층석탑 금동불감 삼세불좌상>(1459-1493)과 <원각사지 석탑 남면 삼세불좌상>(1467년), <기림사 소삼세불좌상> 등이 남아 있을 뿐, 크게 유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조사된 조선시대 삼세불상은 대부분 임진왜란 이후에 유행한 것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소실된 사찰들이 복구되면서 삼세불상이 중심 불전에 봉안되기 시작한다. 그때 사찰은 戰死者의 원혼을 遷度하고 도탄에 빠진 민중을 위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³³ 전사자와 생존자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천도의식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천도의식은 의식집에 의해서 시행되었다. 임란 이전부터 꾸준히 발간된 『眞言勸供』, 『慈悲道場懺法』, 『禮念彌陀道場懺法』, 『天地冥陽水陸齋義式撮要』,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義軌』, 『念佛作法』, 『願修十往生七齋義纂要』, 『靈山大會作法節次』 등의 의식집은 당시 불상과 불화를 조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³⁴ 대

³⁰ 정은우, 앞의 논문, pp. 48-49. 참조

³¹ 문명대, 「경주 남산 윤율곡 태화(太和)9년명 마에 삼불상」, 『원음과 적조미—통일신라시대 불교조각사 연구 下』 (예경, 2003), p. 363.

³² (재)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2006년 금강산 내 금강유적조사 시에 조사되었다

³³ 李康根, 「17世紀 佛殿의 莊嚴에 관한 研究」(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 20. 주29 참조; 정명희, 앞의 논문, pp. 13-14 참조

³⁴ 金相溟, 「朝鮮朝 寺刹板刻手에 관한 연구」(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pp. 109-122 목록 참조

부분의 의식집들은 여러 부처님을 호명하고 찬탄하는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일체제불을 상징하는 삼세불상이 유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란 이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삼국·고려시대 불상들 대신 당시 요구에 적합한 삼세불상이 유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선 초기 억불정책으로 선교양종으로 통폐합되고 불교의 교세가 약화되어 고려시대까지 유지했던 종파불교가 거의 쇠퇴하게 된다.³⁵ 그래서 전란 이후 새로운 불상을 조성함에 있어 종파를 초월한 통합 불교적인 성격의 삼세불상이 유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삼세불상은 중국에서 일찍부터 유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에 점차 등장하여 조선 후기에 대유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 초기 삼불상은 교학상 과거불·현세불·미래불로 구성된 시간 개념의 三世佛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이미 남북조시대에는 노사나불·미륵불·아미타불로 구성된 복합적 개념의 삼불상이 유행하고 있었다. 기록상 과거·현세·미래의 시간적 삼세불은 요·금대에 나타나고 있었을 뿐이다.

III. 조선시대 三世佛像의 圖像 형식

조선시대 삼세불상은 남아 있는 작품 수에 비하여 도상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크게 본존상의 경우 석가불과 비로자나불로 확연하게 구분될 뿐, 좌우존상의 도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본존상을 기준으로 크게 구분하고, 좌우존상의 도상에 따라 세부적인 형식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석가불을 중심으로 구성된 삼세불을 釋迦三世佛 형식으로,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구성된 삼세불을 毘盧遮那三世佛 형식으로 구분하고자 한다.³⁶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조선시대 삼세불상을 분석하면 <표 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석가삼세불 형식은 좌우존상의 존명에 따라 석가불·미륵불·아미타불(가섭불) 형식(I-1), 석가불·약사불·아미타불 형식(I-2), 석가불·다보불·아미타불 형식(I-3)으로 분류하고, 비로자나삼세불 형식은 비로자나불·약사불·아미타불 형식(II-1), 비로자나불·미륵불·아미타불 형식(II-2)등으로 분류하였다.

³⁵ 禹貞相·金煥泰, 『韓國佛敎史』(信興出版社, 1968), pp. 134-138 참조.

³⁶ 그 외에 본존상의 존명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는 三世佛로 명명하고, 석가불이나 비로자나불 이외의 본존불상이 등장하면 그 본존상의 존명을 붙여 명명하고자 한다.

표 1 조선시대 삼세불의 형식 분류

형식 구분		존상배치			유행 시기
		우존	본존	좌존	
석가삼세불	I-1	아미타불	석가불	미륵불	고려·조선 전기
	I-2	아미타불		약사불	조선
	I-3	아미타불		다보불	1700년 전후
비로자나삼세불	II-1	아미타불	비로자나불	약사불	조선
	II-2	아미타불		미륵불	고려·조선 전기

1. 釋迦三世佛 형식

석가삼세불 형식은 석가불을 중심으로 구성된 三佛 형식이다. 석가삼세불 형식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등장하는 조선시대 작품은 현재 불교중앙박물관 전시되어 있는 <수종사 오층석탑 금동불감 삼세불좌상>(1459-1493)이다(도 8). 이 삼세불 형식(I-1)은 항마촉지인 본존은 석가불로 추정 가능하지만 설법인을 하고 있는 좌존상과 선정인을 하고 있는 우존상은 존명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 당시 金守溫이 발문한 『詳校正本大慈悲道場懺法』(1474)의 變相 부분과 비교하여 유추해볼 수 있다.³⁷ 이 변상에는 과거칠불과 미륵불이 등장하고 각각 명칭을 밝히고 있는데, 가섭불과 금동불감 삼세불의 좌존이 동일한 수인을 보이고, 미륵불과 우존이 동일한 수인을 취하고 있다. 즉 <수종사 오층석탑 금동불감 삼세불좌상>을 과거칠불을 상징하는 시간적 개념의 삼세불인 가섭불·석가불·미륵불로 추정해볼 수 있다.

다음은 1503년에 발문한 『禮念彌陀道場懺法』의 변상 부분과 비교해볼 수 있다.³⁸ 이 변상의 미륵불은 <수종사 삼세불좌상>의 좌존과 동일하고, 아미타불과 <수종사 삼세불좌상>우존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석가불·아미타불·미륵불로 추정해볼 수도 있다. 앞서 존명이 밝혀진 <삼불암 마애삼불입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석가불·아미타불·미륵불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두 번째 형식(I-2)은 석가불을 중심으로 좌존 약사불과 우존 아미타불로 구성된 삼세불

³⁷ 朴世敏 편찬, 앞의 책 제1집, p. 3. 『詳校正本大慈悲道場懺法』의 大慈悲道場懺法 變相.

³⁸ 朴世敏 편찬, 앞의 책 제1집, p. 247. 『禮念彌陀道場懺法』의 禮念彌陀道場懺法 變相.



도8 <수중사 오층석탑 금동불감 석가삼세불좌상, 1459-1493년, 금동조, 불교중앙박물관소장



도9 <왕룡사원 석가삼세불좌상, 1579년, 소조, 경주 왕룡사원 (『왕룡사원의 조선 전반기 불상조각』 인용)

이다. 이 삼세불 형식은 조선 후기에 대유행한 형식으로 대부분의 삼세불이 이 형식에 속한다. <표 2>에서 <수중사 금동삼세불감>(1459-1493)(도 8)과 <화엄사 각황전 목삼세불좌상>(1703)(도 11)을 제외한 대부분의 작품들이 해당될 정도로 일반적인 형식이다. 이 형식은 항마촉지인의 본존상을 중심으로 좌우존상이 대칭적으로 하품중생인과 유사한 시무외·여원인을 결하고 있다. 좌존상의 경우 藥器를 들고 있는 경우도 간혹 있다. 또한 본존상이 좌우존상에 비하여 큰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 외에 특별히 몇몇 작품에 조금씩 변형된 도상이 등장하기도 한다.

가장 오래된 기년 작품으로는 16세기에 조성된 경주 <왕룡사원 소삼세불좌상>(1579)이 있다(도 9).³⁹ 현재 석가불과 약사불만 남아 있는데, 석가불의 수인이 항마촉지인이 아니라 하

³⁹ 문명대, 『왕룡사원의 조선 전반기 불상조각』(한국미술사연구소·왕룡사원, 2007. 4), pp. 53-86 참조

표 2 석가삼세불 형식 작품 목록

순	지역	작품명	조성 시기	비고
1	경기 남양주	수증사 금동삼세불감	15C 후반	1459-1493
2	경북 경주	왕릉사원 소삼세불상	1579	아미타 제외
3	전북 익산	승림사 목삼세불상	1614	좌·우존 소실
4	경남 진주	청곡사 소삼세불상	1615	
5	인천 강화	전등사 목삼세불상	1623	
6	경남 창원	관룡사 목삼세불상	1629	
7	전남 영광	불감사 목삼세불상	1635	
8	경북 청도	적천사 목삼세불상	1636	
9	경남 하동	쌍계사 목삼세불상	1637	
10	충남 예산	수덕사 목삼세불상	1639	남원 풍곡사 조성
11	전남 고흥	능가사 목삼세불상	1639	본존 17C 후반 이후
12	전북 전주	송광사 소삼세불상	1641	
13	경남 진주	용석사 목삼세불상	1643	
14	전남 강진	정수사 목삼세불상	1648	우존 조성 시기?
15	전남 해남	서등사 목삼세불상	1650	
16	서울	봉은사 목삼세불상	1651	본존 17C 후반 이후
17	전북 고창	문수사 목삼세불상	1653	
18	전남 해남	대둔사 목삼세불상	1670	대광명전
19	대구 달성	소계사 석삼세불상	1673	
20	전북 김제	홍복사 목삼세불상	1676	
21	전북 진안	천황사 목삼세불상	1680	
22	전남 강진	백련사 목삼세불상	1701	
23	전남 구례	화엄사 목삼세불상	1703	좌존 다보불
24	전남 순천	대각암 목삼세불상	1704	경선암사 대각암
25	대구	동화사 목삼세불상	1727	
26	경북 포항	오어사 목삼세불상	1765	
27	경기 화성	용주사 목삼세불상	1790	

순	지역	작품명	조정 시기	비고
28	경기 파주	보광사 목삼세불상	16-17C	
29	충북 청원	안십사 소삼세불상	16-17C	
30	충남 공주	감사 소삼세불상	17C	
31	서울	국립박물관 목삼세불상	17C	본존상 없음
32	전북 군산	상주사 목삼세불상	17C	
33	충남 논산	쌍계사 목삼세불상	17C	
34	전남 해남	대둔사 목삼세불상	17C	본존 17C 후반 이후
35	충남 공주	동학사 목삼세불상	17C	
36	경북 예천	김용사 목삼세불상	17C	
37	전남 영광	연흥사 목삼세불상	17C	
38	충남 서산	문수사 목삼세불상	17C	극락보전
39	경남 고성	운흥사 목삼세불상	17C	
40	충남 청양	정혜사 목삼세불상	17C	
41	전북 고창	상원사 목삼세불상	17C	
42	전북 완주	대원사 목삼세불상	17C	
43	경남 밀양	표충사 목삼세불상	17C	
44	전남 나주	다보사 목삼세불상	17C	
45	전남 해남	미황사 목삼세불상	17C	
46	전남 강진	고성사 목삼세불상	17C	
47	전남 순천	동화사 목삼세불상	17C	
48	전북 전주	남고사 목삼세불상	17C	
49	강원 원주	구룡사 목삼세불상	17C	본존 양식 다름
50	경북 안동	봉황사 (목)삼세불상	17-18C	
51	경북 김천	직지사 목삼세불상	17-18C	
52	경북 영천	봉림사 소삼세불상	17-18C	
53	충남 공주	마곡사 목삼세불상	17-18C	대웅전



도10 <불갑사 석가삼세불좌상>, 1635년, 목조, 영광 불갑사대웅전

품중생인과 같은 시무외·여원인을 취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작품의 복장물 중 「佛像重修記」에 ‘三世如來’라는 명칭과 ‘藥師琉璃’라는 기록이 있다. 이는 석가불과 약사불이 함께 구성되는 삼세불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의 작품으로는 청원 <안심사 소삼세불좌상>이 있으며, 임란 전후로 추정되는 파주 <보광사 목삼세불상>이 있다. 이 두 작품의 석가불은 향마촉지인이며, 좌우존상은 모두 아미타하품중생인과 동일한 수인을 취하고 있다. 특히 <안심사 소삼세불좌상>의 좌존상은 뚜껑이 있는 藥器를 들고 있다.

존명이 모두 밝혀진 작품은 전북 완주 <송광사 소삼세불좌상>(1641)이다(도1). 조상 기록에 각 존상이 석가불·약사불·아미타불로 밝혀져 I-2 형식을 밝힐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안심사 소삼세불상>과 같이 좌존상에 약기를 들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형식은 전남 영광 <불갑사 목삼세불좌상>(1635)과 같이 본존상을 중심으로 좌우존상이 대칭적인 수인을 취하고, 약기를 들지 않는 경우이다(도10). 이와 같은 형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봉은사 목삼세불좌상>(1651)은 앞서 언급한 복장 기록에 각 존상의 명칭과 개념을 알 수 있고, 또한 삼존을 통칭하는 명칭도 알 수 있는 작품으



도11 <화엄사 각황전 석가삼세불좌상>, 1703년, 목조, 구례 화엄사

로서 그 의미가 크다(도3).⁴⁰ 사바·동방·서방 등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어 공간 개념이 강한 삼세불임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형식(I-3)은 좌존상에 약사불 대신 多寶佛이 등장하는 석가불·다보불·아미타불로 구성된 형식이다. 현재로서는 <화엄사 각황전 목삼세불좌상>(1703)이 유일하다(도 11). 도상 형식은 <불갑사 목삼세불좌상>(1635)과 같이 일반적인 I-2형식과 다를 바 없다(도 10). 조상 기록에 의해서 밝혀진 형식인데,⁴¹ 法華舉佛의 儀式을 도상화한 것으로 1700년 직후 호남 지역의 掛佛에도 등장하고 있는 특징과 일맥상통한다.⁴²

⁴⁰ 주 참조.

⁴¹ 오진희, 「조각승 색탄피와 화엄사 각황전 칠존불상」, 『강좌 미술사』 26-1 (한국미술사연구소외, 2006), pp. 113-138.

⁴² <내소사 괘불>(1700), <청곡사 괘불>(1722), <안곡사 괘불>(1728), <운흥사 괘불>(1730), <다보사 괘불>(1745), <개암사 괘불>(1749) 등이 있다. 정명희, 앞의 논문, pp. 45-49.

2. 毘盧遮那三世佛 형식

비로자나삼세불 형식은 비로자나불 중심의 삼불 형식이다. 비로자나삼세불 형식은 현재 조사된 바에 의하면 6점밖에 없을 정도로 그다지 유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경천사지 석탑 삼세불좌상>(1384)과 같이 고려 후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꾸준히 조성된 것만은 틀림없다(표 3).

표3 비로자나삼세불 형식 작품 목록

순	지역	작품명	조성 시기	비고
1	서울	원각사탑 삼세불상	1467	
2	경북 경주	기림사 소삼세불상	16C	
3	전북 김제	귀신사 소삼세불상	1633	
4	전북 고창	선운사 (목)삼세불상	1633	
5	충남 금산	신안사 소삼세불상	17C	대원정사, 태고사 2존만 봉안
6	강원 삼척	영은사 석삼세불상	18C	

비로자나삼세불 형식에서 유일하게 존명이 밝혀진 작품은 고창 <선운사 (목)삼세불좌상>(1633)이다(도 12). 삼세불상은 본존상의 대좌 목서에서 비로자나불·약사불·아미타불로 존명을 밝히고 있어 法身·報身·化身의 三身佛 형식이 아님을 알 수 있다.⁴³ 그래서 이 형식은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약사불·아미타불로 구성된 비로자나삼세불 형식(Ⅱ-1)으로 분류할 수 있다.⁴⁴ <선운사 (목)삼세불좌상>의 본존상이 검지를 맞대고 있는 독특한 拈拳印을 취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면(도 12),⁴⁵ 좌우존상이 석가삼세불 형식 중 1-2형식인 <불갑사 목삼세불좌상>(1635)의 좌우존상과 동일한 수인을 결하고 있다. 특히 <선운사 (목)삼세불좌상>

⁴³ 『兜率山禪雲寺誌』(禪雲寺, 2003, 2), p. 196.

⁴⁴ 심주완 앞의 논문에서 삼신삼세불 형식으로 구분하였는데 본 논문을 통하여 비로자나삼세불 형식으로 수정하고자 한다.

⁴⁵ 검지를 맞대고 있는 지권인은 같은 삼세불 형식의 <신안사소삼세불좌상>의 본존상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조선 전기로 추정되는 <미국사 대광명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明代로 추정되는 <山西城鎮國寺 소삼세불좌상>의 본존상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어 조선 후기보다는 조선 전기에 유행한 것으로 여겨지며, 중국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



도12 <선운사 석가삼세불좌상>, 1633년, (목)조, 선운사 대웅보전

상)의 좌존상은 약기를 들고 있어 약사불임을 증명하고 있다. 대부분 비로자나삼세불 형식의 작품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도상 형식은 山西省 <鎮國寺 삼세불좌상>과 같이 明代와 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같은 해에 조성된 김제 <귀신사 소삼세불좌상>(1633)은 좌존상이 약기가 없는 점을 제외하고 거의 동일한 도상이다. <기림사 소삼세불좌상>과 <신안사 목삼세불좌상>도 이 형식(Ⅲ-1)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⁴⁶ <영은사 석삼세불좌상>은 좌우존상의 손이 모두 무릎에 있는 점이 특이한데, 돌이라는 재료의 한계인 것으로 생각된다(도13). 좌존은 약사불로 추정할 수 있는 지물을 들고 있는 점이 <선운사 (목)삼세불상>과 동일하다(도12).

그런데 <원각사지 석탑 남면 삼세불좌상>(1467년)은 좌존상이 약사불이 아니라 미륵불

⁴⁶ 이 작품은 현재 本尊佛像과 左尊佛像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불상은 忠南 鎭山郡 身安寺에 있었던 것으로 현재는 본존불상은 大圓精舍에 봉안되어 있으며 下品中生印으로 보이는 說法印을 취하고 있는 좌존불상은 太古寺에 봉안되어 있다. 두 불상만 남아 있지만 원래는 삼불 형식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춘실, 「忠南 鎭山郡 身安寺의 高麗末 塑造佛像—阿彌陀三尊像과 毘盧舍那佛三佛—」, 『考古美術史論』(忠南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 1990), p. 120.



도13 <영은사 비로자나삼세불좌상>, 18세기, 석조, 삼척 영은사대웅보전



도14 <원각사지 석탑 남면 삼세불좌상>, 1467년, 석조, 서울 탑골공원내 (『圓覺寺址十層石塔一實測調查報告書』 인용)

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II-2 형식으로 분류해볼 수도 있다(도14). <경천사지 석탑 남면 삼세불좌상>에 대한 연구성과에서 미륵불로 추정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⁴⁷ 그리고 고려 후기에 조성된 <금강산 삼불암 삼불입상>에서 미륵불이 등장하고(도5), 같은 시기의 1459년 <鶴林寺三世佛像> 중수와 관련된 기록과⁴⁸ 1474년 金守溫이 발문한 「詳校正本大悲道場鐵法」 변상 부분, 1503년 발문한 「禮念彌陀道場鐵法」 변상 부분⁴⁹ 등에서 동일하게 미륵불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전으로 추정되는 <기림사 소삼세불좌상>의 좌존상의 경우도 미륵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IV. 조선시대 三世佛像의 특징

조선시대 삼세불상은 경전상에 등장하는 일반적인 삼세불의 개념이 아니라 복합적인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그 복합적인 개념을 분석하고 그 흐름을 파악하여 조선시대 삼세불상의 특징을 추론해보고자 한다.

첫째, 조선시대 삼세불상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융합되어 있다. 경전상의 삼세불은

47 정은우, 앞의 논문, pp. 51-52.

48 주10 참조.

49 주37, 38 참조.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적 개념의 삼세불이지만, 조선시대 삼세불은 시간적 개념과 공간적 개념이 융합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개념은 이미 중국 5-6세기 초기 삼세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시간적 개념의 삼세불은 요·금대에 잠시 유행했을 뿐이며, 특히 연등불-석가불-미륵불로 이어지는 授記三世佛은 중국에서도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중국 초기 삼세불은 석가불이나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좌존 미륵불·우존 아미타불로 구성된 형식으로 아미타불을 제외하면 시간적 개념이 강한 삼세불이다. 여기서 아미타불은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공간적 개념도 있지만 이미 과거에 성불한 과거불을 상징하는 시간적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⁵⁰

원대부터 좌존상에 미륵불 대신 약사불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조선시대에서도 약사불이 등장하여 유행하게 된다. 약사불은 시간적 개념보다는 유리세계를 관장하는 공간적 개념이 강한 부처이다. 그렇지만 『藥師琉璃光如來本願經』, 『佛說藥師如來本願經』 등에서 來世에 성불하겠다는 발원을 하고 있어 미래불을 상징하는 시간적 개념도 나타나고 있다.⁵¹ 그리고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에 의하면 약사불이 서방 극락세계 아미타불과 함께 등장하는 사상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⁵²

또한 석가불과 미륵불의 경우도 시간적 개념과 공간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석가불은 현재불이면서 사바세계를 관장하고 있고, 미륵불은 미래불이면서도 용화세계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459년 〈학림사 삼세불〉의 중수 기록에 잘 드러나고 있다.⁵³

둘째, 조선시대 삼세불상은 三身佛과 三世佛이 융합되어 있다. 삼세불의 본존상인 석가불과 비로자나불은 三身佛인 비로자나불·노사나불·석가불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삼신불 사상에 의하면 “一佛三, 三佛一”로 범신 비로자나불·보신 노사나불·화신 석가불은 모

⁵⁰ 주 참조.

⁵¹ “第一大願 願我來世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第二大願 願我來世得菩提時 第三大願 願我來世得菩提時”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大正新脩大藏經』 권4, pp. 405a6-405a15에서 來世에菩提를 얻겠다는 12대원을 세우고 있다.

⁵² “亦如西方極樂世界 功德莊嚴等無差別 - 서방 극락세계와 같이 공덕莊嚴은 평등하여 차별이 없다.”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大正新脩大藏經』 권4, pp. 405c5-405a6; “以此善根願生西方極樂世界 無量壽佛所 聽聞正法而未定者 若聞世尊藥師琉璃光如來名號 臨命終時有八菩薩 乘神通來示其道路 - 이善根으로 서방 극락세계의 무량수불이 계시는 곳에 태어나 정법을 듣고자 원하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는 자가 만약 세존 약사유리광여래의 이름을 들으면 목숨이 다할 때,”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앞의 책 권4, pp. 406b9-406b11.

⁵³ 주10 참조.

두 三佛이면서 一佛이 될 수 있는 것이다.⁵⁴ 석가삼세불의 경우 본존상은 석가불이지만 비로자나불과 노사나불이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비로자나삼세불의 경우 본존상은 비로자나불이지만 노사나불과 석가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법신·보신·화신은 三位一體이기 때문에 一佛인 석가불 혹은 비로자나불을 통하여 三身을 투영하는 것이다.⁵⁵

천태·법화 사상에서 삼신불은 三佛로 형상화하는 것보다 一佛로 형상화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⁵⁶ 그래서 <삼도 1>과 같이 삼세불의 본존상은 일불이지만 삼신불이 축약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삼신불을 함축하고 있는 본존상과 시공간적 개념의 좌우존상이 결합되기 때문에 삼신불과 삼세불이 공존하는 것이다. 삼세불과 삼세불은 모두 六佛이지만 삼신불과 삼세불의 본존이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불이다. 즉 삼세불은 三佛이지만 五佛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⁵⁷

특히 석가삼세불은 비로자나삼세불에서 한 단계 진전된 형식으로 여겨진다. 비로자나불은 실제로 표현될 수 없는 佛이다. 法身은 眞理를 뜻하는 부처로 可視的인 부처로 표현하기보다는 비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報身인 노사나불도 마찬가지다. 교학적으로 삼신불에서 가시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부처는 化身 석가불밖에 없다. 가시적인 석가불을 통하여 비가시적인 비로자나불과 노사나불이 투영되는 것이 더욱 교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삼도 1>.⁵⁸

⁵⁴ “……과불을 조성한 化主僧 德활이 釋迦如來 六金身 畫像을 만들고 내게 記文을 청하나…… 六金身은 毘盧法界身の 影中影으로…… 影中 眞을 찾으면 곧 毘盧法界身을 본다…… 三佛 形儀摠이 眞의 말씀이 아닌 것이 있겠는가……” 『通道寺掛佛懸板文』 해석문: 정명희 앞의 논문, p. 79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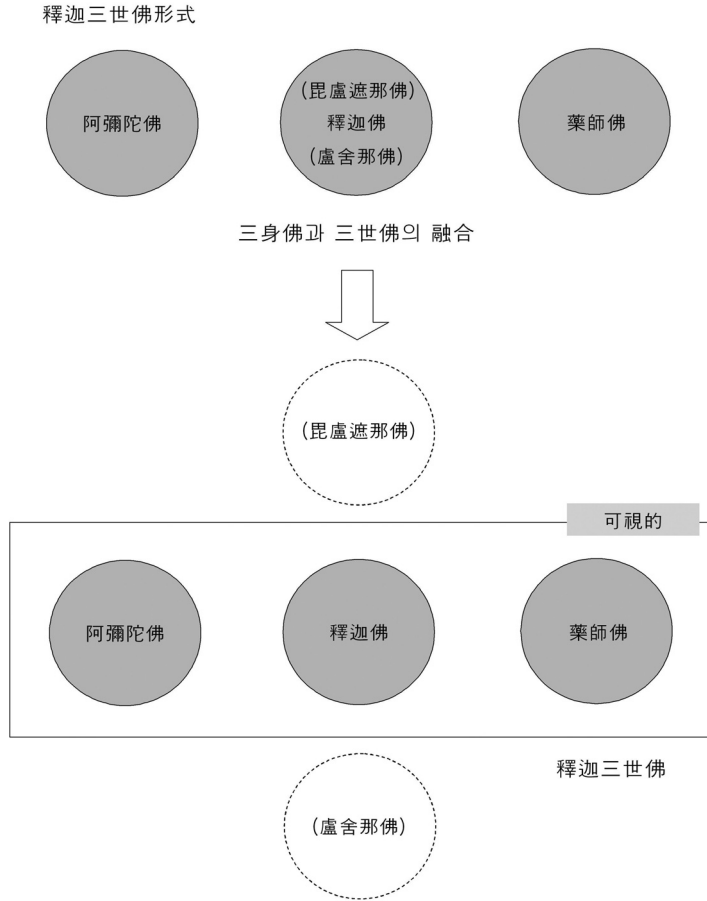
⁵⁵ “化·應·法の 三身 중 앞의 二種身은 ‘假名有’ 이고 第三身, 즉 ‘法身’만이 ‘眞有’ 또한 ‘眞實有’라고 한다. 法身이 前 二身の 근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李箕永, 「佛身に 관한 연구」, 『佛教學報』 3·4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66), p. 226 인용.

⁵⁶ “천태·법화는 多即一에 중점을 두었고, 화엄은 一即多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법화는 현실적이며 화엄은 이상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 다른 셈이다. 따라서 법화가 會三歸一이라 한다면 歸一會三이라 해야 할 것이며……” 文明大, 「비로자나불의 조형과 그불신관」, 『統一新羅 佛敎彫刻 研究(上) — 원음과 고전미』 (예경, 2003), p. 180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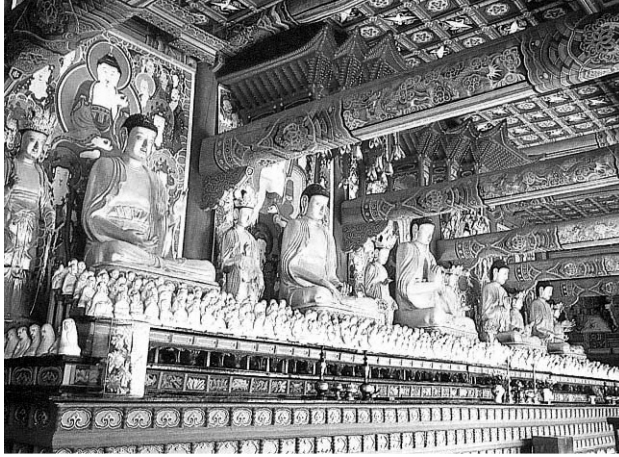
⁵⁷ “그러므로 三世의 부처와 十方의 보살들로 몸을 없으면서 몸을 나타내어 보이고 일체의 형상이 아니면서 형의(形義)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이다(所以三世如來 十方菩薩 無身現身而示現一切色相 非像作像而教化十種形儀).”, 申鶴祥 『四冥堂實記』(佛麟苑, 1982), p. 348 참조; 심주완, 앞의 논문, p. 58 참조.

⁵⁸ “佛身은 第一義諦와 慧道の 見地에서 볼 때 無相인 것이며, 그것이 바로 法身이다.” 이기영, 앞의 논문, p. 220 참조.; “부처님의 법신(法身)은 형상이 없으나 중생들의 마음속에 두루 들어 있다(法身無相 徧入衆生心想中).” 申鶴祥, 앞의 책, p. 348 참조.

삽도1 석가삼세불 형식의 배치 구성 해석



즉 비로자나삼세불보다 삼불을 통하여 五佛을 완벽하게 완성하고 있다. 그래서 비로자나삼세불보다는 석가삼세불이 더 유행했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조선 초기 明代의 영향으로 <內佛堂 오불상>과 <금산사 대적광전 오불상>(도 15), <十輪寺소장 오불회도> 등의 오불 형식이 유행하였다가 임진왜란 이후 삼세불 형식이 대유행을 하게 되는 점과 친연성이 있다. 또한 전란을 겪었던 사회적 분위기에 있어 오불보다는 삼불을 조성하기 쉬운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삼세불은 불교 건축 배치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통도사 靈山殿 권역은 석가불이 봉안되어 있는 영산전을 중심으로 아미타불이 봉안되어 있는 극락보전과 약사불이 봉안되어 있는 약사전이 마주하고 있어 석가삼세불 형식으로 배치되어 있다.⁵⁹ 삼세



도15 <금산사 오불좌상>, 17세기,
소조, 1986년 燒失 (『金山寺實測
調査報告書』 인용)

불 형식과 달리 극락전과 약사전이 서로 바뀌어 있는 점이 다를 뿐이다.⁶⁰

셋째, 조선시대 삼세불은 十方三世一體諸佛을 상징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삼세불은 모든 공간을 의미하는 十方과 모든 시간을 의미하는 三世에 존재하는 모든 부처를 뜻하는 시방삼세일체제불의 축약이라고 볼 수 있다. 三佛으로써 모든 시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부처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삼세불은 삼신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적 개념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緣起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즉 삼세불은 일체제불을 축약한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의식집을 살펴보면 대부분 삼신불과 삼세불 등을 언급한 후 일체제불로 마무리하고 있다.⁶¹ 가장 잘 알려진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불, 미륵불, 다보불, 약사불, 아미타불 등은 모두 삼세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삼세불상은 일체제불을 시각적으로 펼쳐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조선시대 삼세불상은 복합적 신앙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선시대의 삼세불상은 중국 5세기 후반부터 등장하는 삼불상의 전통을 잇고 있으며, 그동안의 시대적·사상적 변화와 축적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조선시대 삼세불상은 다양한 신앙적 체계를 응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석가불(비로자나불)·약사불·아미타불로 구성된 삼세불 형식(Ⅰ-2, Ⅱ-1)을 기준으로 <표 4>와 같이 각 존상의 신앙 체계를 분석하

⁵⁹ 정재훈, 『한국 전통의 원』(조경, 1996. 9), p. 451 통도사 가람 배치도 참조

⁶⁰ “自毘盧殿禮佛後 次靈山殿 次東藥師殿 西極樂殿 說法殿……” 朴世敏 편찬, 앞의 책 제2집, p. 214 「五種梵音集」 附錄에서 삼세불과 동일하게 동쪽에 약사전, 서쪽에 극락전이 배치되어 있다.

⁶¹ 주1 참조.

표 4 조선시대 삼세불 형식의 신앙 체계 분석

尊名	阿彌陀佛	釋迦佛(毘盧遮那佛)	藥師佛
配置	右尊	本尊	左尊
時間	過去世	現世	未來世
空間	極樂世界	娑婆世界	琉璃世界
方位	西方	中央	東方
信仰	死(極樂化生)	生(覺)	病(壽命長壽)
自他	他力	自力	他力
三身	報身	法身, 化身	報身

고자 한다. 각 존상의 신앙 체계를 분석하는 것은 조선시대 불상의 특징을 밝히는 시론적 연구라 하겠다.

먼저 배치에 있어서 석가불이 본존, 약사불이 좌존, 아미타불이 우존인 것은 시간의 개념 때문이다. 아미타불이 과거, 석가불이 현세, 약사불이 미래라는 시간적 흐름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구성되고 있다. 공간과 방위의 개념은 경전에 따라 배치되고 있다. 사바세계의 석가불은 현실에 있기 때문에 중앙에 있으며, 우리세계의 약사불은 동방에 있기 때문에 좌존에 배치되며, 극락세계의 아미타불은 서방에 있기 때문에 우존에 배치된다.

그리고 신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삼세불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신앙적인 배치로 구성되어 있다. 불교 교주인 석가불이나 진리의 상징인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현실의 “壽命長壽”를 위한 약사불과 死後 “極樂化生”을 위한 아미타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명장수와 극락화생뿐만 아니라 중앙에 불교 교주인 석가불이나 진리의 상징인 비로자나불을 배치함으로써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깨달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즉 思想的인 측면과 信仰的인 측면이 공존한다고 할 수 있다. 불교사상적인 의미에 비중을 두어 스스로 成佛한다는 自力的인 신앙을 나타내고 있다. 좌우존은 각각 신앙적인 의미에 비중을 두어 부처에 의지하여 현실 고통을 해결하려는 他力的인 신앙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삼세불은 불교의 중심 사상을 견지하는 석가불과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두고 대중이 열망하는 약사불과 아미타불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된다.⁶²

⁶² 심주완, 앞의 논문, p. 14.

V. 맺음말

이상으로 조선시대 삼세불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삼세불상의 개념과 삼세불의 명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삼세불의 조상 전통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조선시대 삼세불을 도상 형식별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삼세불의 특징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하였다.

삼세불은 시간적 개념뿐만 아니라 공간적 개념이 공존하고 있으며, 그 복합적 개념의 삼세불이 중국 남북조시대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요·금대에 다시 등장하여 원·명·청대 이르기까지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고려시대에 삼세불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고려 말·조선 초에 그 전통을 잇고 조선 후기에는 대유행하였다. 특히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금강산 삼불암 마애삼불입상>은 존명이 밝혀져 삼세불의 개념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도5).

조선시대 삼세불을 크게 석가삼세불 형식과 비로자나삼세불 형식으로 구분하였는데, 비로자나삼세불 형식은 조선 전기적인 경향이 강하고, 석가삼세불 형식은 조선 후기에 대유행하였다. 특히 좌존상은 미륵불에서 약사불로 대체되어 조선 후기에는 약사불로 정형화되었다.

그리고 조선시대 삼세불은 시간과 공간 개념이 융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삼신불과 삼세불의 융합, 오불의 형상화, 지방삼세일체제불의 대변, 사상과 신앙의 공존, 자력과 타력 신앙의 조화 등의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보았다.

지금까지 제시한 논지가 구체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완할 것이며, 또한 앞으로 조선시대의 사회적 변화와 삼세불의 관계, 불교 의식과 삼세불의 관계, 삼세불과 유교 이념의 영향, 삼세불에 대한 중국과의 교류 관계 등에 대해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한다.

* 주제어(key words) __ 三世佛(The Buddhas of Three Worlds[Realms, Times]), 三身佛(The Buddhas of Three Bodies), 三佛巖(Sambulam), 朝鮮時代(the Joseon Dynasty period)

참고문헌

- 김경섭, 「龍珠寺 大雄寶殿 三佛會圖의 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김상호, 「朝鮮朝 寺刹版 刻手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김춘실, 「忠南 鎭山郡 身安寺의 高麗末 塑造佛像—阿彌陀三尊像과 毘盧舍那佛三佛—」, 『考古美術史論』, 忠南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 1990.
- 문명대, 「조선조 석가불화의 연구」, 『조선조 불화의 연구—三佛會圖』,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_____, 「三身佛의 圖像特徵과 朝鮮時代 三身佛會圖의 研究」, 『韓國의 佛畫』 12, 정보문화재단연구원, 1998.
- _____, 「비로자나불의 조형과 그 불신관」, 『원음과 고전미—통일신라 불교조각연구 상』, 예경, 2003.
- _____, 「경주 남산 윤율곡 태화(太和)9년명 마애삼불상」, 『원음과 적조미—통일신라 불교조각사 연구 下』, 예경, 2003.
- _____, 『왕릉사원의 조선 전반기 불상조각』, 한국미술사연구소·왕릉사원, 2007.
- 박세민 편찬, 『韓國佛敎藝術資料叢書』 제1-5집, 三聖庵, 1993.
- 배진달, 『중국의 불상』, 일지사, 2005. 8.
- 송은석, 「17世紀 周刻僧 玄眞과 그 流派의 造像」, 『미술자료』 70·71, 국립중앙박물관, 2004. 12.
- _____, 「17世紀 朝鮮王朝의 周刻僧과 佛像」,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심주완, 「17世紀 前半期 大形塑造佛像 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신학상, 『平壤冥堂實記』, 麒麟苑, 1982.
- 오진희, 「조각승 색란파와 화엄사 각황전 칠존불상」, 『강좌 미술사』 26-1, 한국미술사연구소 외, 2006.
- 우정상·김영태, 『韓國佛敎史』, 信興出版社, 1968.
- 이기영, 「佛身에 관한 연구」, 『佛敎學報』 3·4,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966.
- 이강근, 「17世紀 佛殿의 莊嚴에 관한 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이분희, 「奉恩寺 三世佛像의 研究」, 『불교문화』 6, 한국불교문화학회, 2004.
- 이용윤, 「삼세불의 형식과 개념의 변화」, 『미술사학』 20, 동악미술사학회, 2008. 6.
- 정명희, 「朝鮮後期 掛佛幀畫의 研究」,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정병삼, 『그림으로 보는 불교 이야기』, 풀빛, 2000.
- 정은우, 「敬天寺址 10層石塔과 三世佛會考」, 『미술사연구』 19, 미술사연구회, 2005. 12.
- 정재훈, 『한국 전통의 원』, 조경, 1996. 9.

- 황규성, 『朝鮮時代 三身佛會圖에 관한 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_____, 「朝鮮時代 三世佛 圖像에 관한 研究」, 『미술사학』 20, 미술사교육학회, 2006.
- 溫玉成, 「泉州三世佛造像再探」, 『敦煌研究』 66, 敦煌研究編輯部, 2000.
- 中國美術全集編纂委員會 編, 『中國美術全集』 雕塑編 13, 文物出版社, 1989.
- 『兜率山 禪雲寺誌』, 禪雲寺, 2003. 2.
- 『奉恩寺—수도산 봉은사 지표조사보고서』, 대한불교조계종 수도산 봉은사·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4.
- 『朝鮮寺刹史料』 下, 朝鮮總督府, 1911.
- 『山西佛教彩塑』, 中國佛教文化研究所 외, 1991. 6.
- 『大正新脩大藏經』

三世佛은 敎學上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적 개념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석가불·약사불·아미타불로 구성된 독특한 삼세불상이 대유행을 하게 된다. 또한 본존상에는 비로자나불이 등장하기도 하고, 좌우존상에는 아미타불·미륵불·다보불 등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삼세불은 주요 사찰의 중심 佛殿에 봉안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 전역에 퍼져 있어 조선시대 조각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삼세불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으며, 그 연구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 삼세불은 교학적 근거가 없고 다양한 형식과 복합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석가불 중심의 삼불 형식은 三世佛, 三佛, 三界佛, 三方佛 등으로 명명되고 있으며, 비로자나불 중심의 삼불 형식은 ‘毘盧遮那三身佛’, ‘三身佛’, ‘三身三世佛’, ‘三佛’ 등으로 명명되고 있다. 그래서 명칭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고, 조상 기록을 밝혀 ‘三世佛’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함을 증명하였다.

삼세불은 인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5세기 중국 북위 시대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이미 시공간의 개념이 융합된 삼세불이 조성되고 있었다. 遼·金代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여 원·명·청 대 이르기까지 삼세불의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隋代 <靈泉寺 大住石窟 삼세불좌상>(589년)은 본존 노사나불, 좌존 미륵불, 우존 아미타불로 구성되어 남북조시대 삼세불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도4), 금대 <常樂寺 삼세불좌상>은 본존 석가, 좌존 미륵, 우존 가섭으로 구성되어 요·금 대 삼세불의 일면을 이해할 수 있었다(도7).

우리나라도 고려시대에 삼세불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여 조선 초까지 고려의 전통이 이어지고 조선 후기에는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게 된다. 특히 고려시대 <금강산 삼불암 마애삼존불상>은 존명이 밝혀져 삼세불의 개념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도5).

조선시대 삼세불을 크게 석가삼세불 형식과 비로자나삼세불 형식으로 구분하였는데, 비로자나삼세불 형식은 조선 전기적인 경향이 강하고 석가삼세불 형식은 조선 후기적 경향이 강하다. 특히 좌존상은 미륵불에서 약사불로 대체되어 조선 후기에는 약사불로 정형화되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석가불·약사불·아미타불로 구성된 석가삼세불 형식이 전국적으로 유행하게 된다.

조선시대 삼세불은 과거·현재·미래를 상징하는 시간의 개념과 사바세계·유리세계·극락세계를 상징하는 공간적 개념이 융합되어 있고, 또한 法身·報身·化身의 三身佛 개념도 융합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五佛을 형상화하고, 시방삼세일체계를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사상과 신앙이 공존하고 자력 신앙과 타력 신앙의 조화를 이루는 구성력을 보이고 있다.

Buddhas of the Three Worlds in the Joseon Dynasty

Shim Joowan*

The Buddhas of the Three Worlds are normally understood as temporal manifestations of Buddha, hence the embodiments respectively of the past, present and the future. During the Joseon Period of Korea, however, a peculiar triad of Buddhas came to represent the Buddhas of the Three Worlds, composed of Śākyamuni, Bhaiṣajyaguru and Amitābha. The main Buddha of the triad was sometimes Vairocana, accompanied by Amitābha, Maitreya or Prabhūtaratna Buddha as attendant Buddhas. The Buddhas of the Three Worlds are given prominent positions within major Korean temples, located most often inside their main sanctuary, and their place in the history of Joseon-period sculpture was just as central.

The Buddhas of the Three Worlds in Joseon Buddhist temples have received much attention among Buddhist specialists. However, due to the lack of doctrinal grounding of this type and its vast stylistic diversity as well as its eclectic symbolism, the interpretation of this sculptural tradition varies wildly depending on the researcher. Buddha triads having Śākyamuni as the main Buddha are generally designated by terms such as *samsebul* (Buddhas of the three Worlds), *sambul* (Three Buddhas), *samgyebul* (Buddhas of the three spheres) or *sambangbul* (Buddhas of the three directions).” Meanwhile, those triads having Vairocana as the main Buddha are referred to as *birojanasamsinbul* (Buddhas of the three bodies with Vairocana),” *samsinbul* (Buddhas of the

* Ph. D Candidate, Korea University Cultural Resources Studies

three bodies), *samsinsamsebul* (Buddhas of the three bodies and the three worlds) or *sambul* (Three Buddhas). In this paper, I discuss the confusion in the nomenclature of this iconographic type, and attempt to explain why it should be designated as *samsebul* by tracing back to the earliest available historical records.

The Buddhas of the three worlds, unknown in Indian Buddhism, made their first appearance during the fifth century, in Northern Wei of China. Buddha triads produced during this period already exhibited the defining characteristics of the Buddhas of the three worlds, namely the successive spatio-temporal embodiments of Buddha. The images of the Buddhas of the three worlds regained popularity during the Liao and Jin Dynasties, and the tradition was maintained throughout Yuan, Ming and Qing. The Sui-dynasty Buddhas of the three worlds in the Dazhu cave at Lingchuan Temple (589), having Rocana as the main Buddha, accompanied by Maitreya as the left attendant and Amitabha as the right attendant, for instance, are considered an excellent showcase of this sculptural theme, as it was understood and interpreted during the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of China. Likewise, the Jin-Dynasty Buddhas of the three worlds in Changle Temple, consist of Śākyamuni, Maitreya and a Kāśyapa eloquently bespeak the related tradition in the Liao and Jin Dynasties.

In Korea, sculpted images of the Buddhas of the three worlds first appeared during the Goryeo Dynasty. This tradition, having remained current through the following Joseon Dynasty, was brought to a peak in the later part of the dynasty, when it gained a nationwide popularity. The Maitreya Buddha Triad at Samburam of Mt. Geumgang, dating from the Goryeo Period, in particular, importantly helped to cast light on the symbolism of the Buddhas of the three worlds, when the identities of the three deities were finally established (Fig. 5).

Joseon-period Buddhas of the three worlds are distinguished into two broad categories: those with Śākyamuni as the main Buddha and those having Vairocana as the main Buddha. The latter are generally from the early Joseon Period, while the former are in the style of the late Joseon Period. In the late Joseon Dynasty examples, Bhaiṣajyaguru Buddha replaced Maitreya as the left-hand attendant of the main Buddha. Hence, the triads popular nationwide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most often consisted of Śākyamuni, Bhaiṣajyaguru and Amitābha.

Joseon Buddhas of the three worlds combine the temporal symbolism whereby each of three deities represent the past, present and the past, with a spatial symbolism whereby they

respectively stand for the Saha world, the Vaiḍūryaprabhāsa world and the Sukhāvātī. The symbolism also contained the concept of Buddhas of the three bodies, namely *Dharmakāya*, the body of ultimate reality, *Sambhogakāya*, the body of bliss, and *Nirmāṇakāya*, the body of transformation. They, furthermore, embody aspects of the five *dhyaṇi* Buddhas and are understood to represent all Buddhas of the ten directions and three eras. Ideology and faith coexisted in these sculptural representations, which struck a fine balance between the inner and outer dimensions of Buddhist faith.